

포커스 지역경제와 주민 사랑 받고 있는 '고창 컨트리클럽'

고창 서해바다, 전국 골퍼들에 존재감 높여

군민의 화합 위해 장소 배려
고창군 골프협회장배 마무리

고창=안병철 기자

“고창 서해바다를 전국 골퍼들에게 알리면서 지역민과 동고동락 하겠다”

지난해부터 난민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골프장은 북새통을 이루며 예약하기 힘든 ‘가깝고도 먼 땅’으로써 존재감이 높아졌다.

따라서 고창군 생활체육회 소속의 골프협회는 180여명의 경기를 치를 골프장을 찾지 못하고 애를 태울 때에 고창cc로부터 장소협찬의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고창골프협회 김양희 회장은 “매년 14개 읍면과 골프클럽 회원들이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행사였다”며 “돈보다 군민의 화합을 위해 선뜻 장소를 배려한 고창cc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창생활체육회 최대 규모로써 10만원 상당의 지역 농수산물 후원 물품도 인기가 높다.

올해 2년 임기를 마치는 김 회장을 비롯해 정삼훈 사무국장, 김현수 재무, 조수현 여성사무국장, 김민영 총무 등이 지난 7일 고창cc에서 협회장배를 무사히 마쳤다.

이날 우승에 김용성, 박경희씨, 메달리스트는 임경수(73타), 김화재(70타), 롱게스트는 문경준, 조수현씨, 니어리스트는 서학용, 임미량씨 등이 각각 차지했다.

이 같은 기부에 앞장선 고창 컨트리클럽은 삼원면 해안선을 따라 지난 2006년에 염전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으로서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사토 겐타로의 디자인으로 개장했다.

이곳은 7,037야드에 18홀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코스를 배치해 구름이 흘러가듯 아름다운 경관과 잘 정비된 코스로서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과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한양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의 경력을 쌓은 최창열 회장은 성실납세 국제점장과 대통령 표창장 등이 자랑이다.

기존 타 골프장들과는 달리 정규 18홀 외 3홀을 더 갖춘 고창CC는 +3홀을 성수기 등 경기 지연 시 고객 불만 해소와 18홀 플레이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골퍼

에게 인기이다.

지난 2018년 오픈한 고창비치호텔은 40개의 객실을 갖추며 주변의 풍천장어, 복분자, 바지락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나조의 감상도 일품이다.

김형근 전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과 함께 세계유산 갯벌, 노을대교가 맞닿는 고창cc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잘 가꾸겠다”며 “무엇보다도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년 2,0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이웃돕기에 앞장서며 지난 3월에도 심원면에 마스크 1만장을 기탁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풍광과 깔끔한 코스만큼이나 임원진과 직원들의 친절, 배려 등은 또 다른 매력이다.

광주에서 대동고등학교를 비롯해 대동건설, 광주 스포츠타운, 고창 동방호텔 등



으로 확장한 고창 컨트리클럽은 지난 15년간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국의 골퍼들을 움직이고 있다.

매력적인 서해의 나조, 그 신비한 세계가 펼쳐진 곳 고창컨트리클럽! 플레이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바다, 송림, 바람이 어우러지고 인심까지 고품격이다.

체육형 관광 휴양 골프장을 표방하며 호남지방에 새로운 골프문화를 선보이는 고창컨트리클럽은 이번 고창생활체육인들에게 깊은 배려와 감사를 선사했다.

박창열(사진) 회장은 “골프의 숨씨는 골 좋아하지 않지만 어느 나이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듯이 고창기업으로 성장한 임직원들은 더욱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자율방재단 '최우수상'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북도에서 주관한 지역자율방재단 우수활동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표창과 포상금 2,000만 원을 받게 됐다. /무주=이형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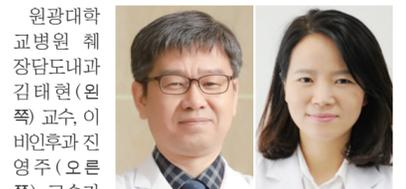


장수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제6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에 추진한 ‘행복 나눔 침대’ 사업 결과보고와 크리스마스를 맞아 12월 추진 예정인 ‘미리크리스마스’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미디어콘텐츠상에 김태현·진영주 교수



원광대학교 병원 행정담당과 김태현(왼쪽) 교수, 이비인후과 진영주(오른쪽) 교수가 지난 7일 외대 대강당에서 열린 보직교수 및 팀장, 중간관리자 회의에서 제1회 ‘미디어콘텐츠상’을 수상했다. ‘미디어콘텐츠상’을 수상한 행정담당과 김태현 교수와 이비인후과 진영주 교수는 전인적 환자 진료로 대내외 신뢰감이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학회 활동과 논문 활동으로 임상 의사가 갖춰야 할 진료, 연구, 교육의 삼위일체 의사상 확립에 기여해 왔다. /익산=고은영 기자



정읍시, 소규모공동체 아이디어 발표회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지난 7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공동체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2년 시민창안대회에 공모·접수한 10개소의 소규모공동체 대표와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공동체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박기수 기자



익산시, SRT가 뽑은 최고의 여행지 선정

익산시가 SRT 탑승객과 전문가들이 뽑은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돼 ‘2021 SRT 어워드’를 수상했다. SRT 매거진은 매년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를 개최하고 SRT탑승객 독자설문, 여행작가, 여행전문기자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익산을 비롯한 최고의 여행지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연간 3,600만명이 이용하는 SRT탑승객들 가운데 9,231명의 독자설문이 반영돼 일반인 인지도도 포함한 설문으로 관광도시 익산의 위상을 증명한 것이다. /익산=임규창 기자

KIST-완주장애인복지관 ‘키위카페’ 문 열었다

연구소 내 위치...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 운영

완주군장애인복지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협업해 장애인들의 꿈을 이어줄 ‘키위(KI-WE)’ 카페의 문을 열었다.

8일 열린 개소식에는 박성일 군수와 김재천 의장,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조성문 완주군장애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카페의 힘찬 첫걸음을 축하했다.

또한, 장애인 기타리스트 김건씨의 공연을 비롯하여 참석자들에게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커피가 제공됐다.

지난 10월 KIST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와 완주군장애인복지관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과 카페 시설 확충, 명칭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키위(KI-WE)는 KIST와 지역이 더불어(WE) 나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19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연구소 내 17평 규모의 공간에서 장애인 바리스타를 포함한 2명의 직원이 커피와 스낵 등을 판매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키위(KI-WE) 카페의 운영 수익금은 장애인 종사자들의 임금과 재료구입 등 카페 운영에 사용된다.

박 군수는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KIST와 뜻을 모을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지역주민과 지역내 공공기관이 상생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지난 7일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봉강마을 인근 하천에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농약방·페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원광대 중앙도서관, 책 쓰기 프로젝트 ‘원 북’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자아실현 기회 제공을 위한 ‘책 쓰기 프로젝트 원 북(WON BOOK)’을 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원 북은 ‘원광인들의 책, 단 하나의 책’이라는 뜻으로 내 이름으로 된 나만의 책을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임규창 기자



김제시, ‘눈물로 써 내려간 편지 모음’ 거리 전시회

김제시는 17일, 김산동 여성 친화의 거리에서 비문해 학습자들이 애절함을 담아 낸 성인 문해 거리 시화전을 갖는다.

이 시화전은 늦깎이 한글 교육 학습자들의 일상을 담아, 배움의 기쁨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하는 편지글이다.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삶의 애환과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낸 52점의 손편지들이 주를 이룬다.

전시회에 참여한 안 모씨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는 큰아들을 생각하며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기억이 생생하다”며, “글 모르는 애미 만나 맘고생 많이 하고 자란 아들에게 꼭 내 손으로 편지 한 통 보내고 싶었다”고 애뜻함을 회고했다.

이성문 시 인재양성 과정은 “이 거리시화전은 문해 학습자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 글로 꾸려졌으며, ‘한 글자 한 글자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애환을 담은 가슴속 이야기를 눈물로 풀어놓은 글들이 많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제=백용규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사진공모전 시상’

국립임실호국원은 제7회 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이상 수상자에 대하여 찾아가는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방문을 희망하는 수상자에 한해 개최됐다.

이번 전국사진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과 함께 나라 사랑의 의미를 나누고자 일곱 번째로 개최됐으며, 11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은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영감! 우리 왔어요!’ 주제로 한 김중식님이 대상의 영광을, 금상에는 최경범님의 ‘호국원의 여명’, 은상에는 김정연님의 ‘고향 앞 임실호국원’, 최원재님의 ‘막내의 효도’ 등 22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임실=박길수 기자



다문화가야제 대상에 익산 ‘왕후이후이’

국제로타리클럽 3670지구에서 주최한 제1회 다문화가야제에서 왕후이후이(중곡)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다문화가야제는 전북 14개 시·군에서 총 15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익산에서는 왕씨가 이리동로타리클럽의 추천으로 참가해 ‘배따위리’를 열창, 대상의 영예와 함께 2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익산=임규창 기자